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 사이에서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의 조절효과

Control Effect of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on Retirement and Senior Life Perception, Retirement Preparation Actions, and Retirement Satisfaction Level

김남원, 장선철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Nam-Won Kim(one@onnuri.org), Sun-Chul Jang(scjang@jj.ac.kr)

요약

평균수명 연장과 2010년부터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고 노인인구로 편입되면서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은 은퇴인식과 경제적 은퇴준비가 은퇴 후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에 따라 은퇴준비 관련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이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전국 만 20세부터 69세 이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절차를 안내하는 서한과 함께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거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83건을 제외한 설문지 1,41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은퇴준비를 잘할수록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이 긍정적이고, 은퇴준비 행동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은퇴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은퇴준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경제적 은퇴준비 | 은퇴인식 | 노후생활 인식 | 은퇴준비 행동 | 은퇴만족도 |

Abstract

Extension of life expectancy and retirement of baby-boomers from 2010 made big population senior citizens, and concerns about retirement was heightened. Researches to remove the concerns about retirement found out that awareness for senior age life and financial preparation actions for retirement influence retirement lif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is research identified the influence of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on related variables, and analyzed its control effect on retirement and senior life perception, retirement preparation actions, and retirement satisfaction level. For that, from Nov 2015 to Feb 2016, this research surveyed 1,500 people from 20 to 69, by mailing or visiting with survey, noting purpose and process of research, eliminating 83 insufficient replies, and analyzing 1,417 surveys. This result shows the better retirement preparation, the more positive retirement and senior life perception, retirement preparation actions, and retirement satisfaction level.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as basic data for general and practical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 development.

■ keyword : | 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 Retirement Perception | Senior Life Perception | Retirement Preparation Actions | Retirement Satisfaction Level |

I. 서론

지난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1.9세로 40년 전에 비해 20년이나 증가하였고, 증가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1]. 또한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부머들의 '썰물 은퇴'로 거대한 인구집단이 퇴직하고, 노인 인구가 편입하면서 개인이나 기업, 국가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모[2]. 평균 수명 연장과 베이비부머들의 썰물 은퇴로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 절반에 가까운 46%가 경제적 은퇴준비를 잘못하고 있으며, 잘하고 있는 경우는 7%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제적 은퇴준비 부족은 전 연령대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3]. 이지영[4]은 은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은퇴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고, 여운경[5]은 은퇴할 때까지 충분한 은퇴자산을 확보하는 가계는 52%,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는 62.2%라고 했다. [1]에 따르면 자녀나 친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27.5%나 됐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은퇴준비와 관련된 진지한 논의와 실증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유인순[6]은 무업(無業), 무전(無錢) 문제가 노후에 당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경제적 은퇴준비를 강조했고, 김연진[7]은 경제적 은퇴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은퇴 후 삶을 성공적으로 가꿀 수 있다고 밝혔다. 배문조, 전귀연[8]은 소득과 직업에 대한 태도가 은퇴준비에 영향을 준다고 했고, 홍성희, 곽인숙[9]은 주택자산과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부채가 적을수록, 경제적 은퇴준비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여운경, 김진호[10]은 은퇴준비 충분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를 재직기간, 월평균 총소득, 은퇴자금 총액수라고 했고, 박창제[11]은 경제활동, 현재소득에 대한 인식, 주택소유, 전반적 생활여건이 향상되었을 경우 경제적 은퇴준비가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렇듯 지금까지 은퇴 관련 연구들은 변인들 간 상관관계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성영모 외[12]는 경제적 은퇴준비 관련 변인들 간 상관관계 이외에 은퇴 관련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경로분석과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은퇴준비 및 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

가 시급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에 따라 은퇴준비 관련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이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실제적 은퇴준비 프로그램 개발 등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의 관계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은 은퇴와 관련된 개인의 태도와 행동 같은 차별화되고, 집합적인 개념이다(Tomas, E., & Biddle[13]. 많은 사람들이 은퇴한 뒤에도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여가를 즐기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거나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은퇴와 관련된 문제는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운경 외[14], 허균석[15]. 따라서 은퇴 진입 이전단계에서부터 비은퇴자 스스로가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켜 줌으로써 은퇴준비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은 은퇴준비 행동을 유도하는 영향 요인이다. 김종모[2]는 노후생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은퇴준비를 포함한 은퇴준비 수준이 높고, 은퇴만족도도 높다고 했다. 한경혜 외[16]은 은퇴인식과 노후생활 인식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은퇴준비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따라서 은퇴인식 및 노후생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경제적 은퇴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경제적 은퇴준비와 은퇴만족도의 관계

Atchley[17]은 경제적 은퇴준비와 은퇴만족도에 대해 '정상적인 노화'라는 용어로 설명하면서 수입, 주택,

건강관리, 영양, 의복, 교통, 여가에 대한 욕구가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정상적인 노화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경제적 은퇴준비가 은퇴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다수의 은퇴관련 연구에서도 경제적 은퇴준비가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배문조[18]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퇴직금 및 연금제도 등 은퇴 이후 경제적 준비가 미흡하고, 현재의 고용상태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제한되어 노후를 두려운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경제적 은퇴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강유진[19]는 경제적 은퇴준비는 노년기가 되기 이전부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은퇴 인식 및 노후생활 인식과 경제적 은퇴준비의 충분성과 적정성이 은퇴 이후 삶의 질을 내다 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퇴만족도는 은퇴 이후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여윤경[20]은 은퇴 이후를 잘 대비하는 것을 ‘성공적 노화’라고 정의하면서, 성공적 노화가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김정현[21]은 은퇴만족도에 대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수준이 높고, 본인 스스로 느끼는 삶의 만족이 높은 상태이며, 적응 수준이 높은 상태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은퇴만족도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행복을 부여하여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안녕감 또는 삶의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주성[22]는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가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느끼면 삶 자체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다고 하였고, 조주연, 권중돈[23]은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중·노년기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은퇴만족도는 은퇴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수록 높고, 은퇴준비를 잘 할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에 따라 은퇴준비 관련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이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

만족도 사이에서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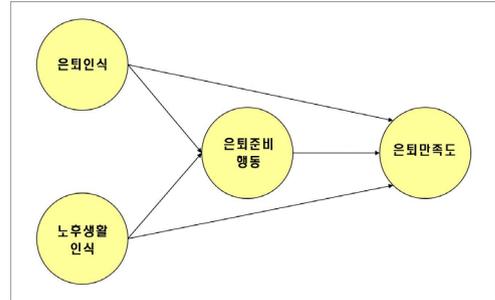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4.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에 따라 은퇴준비 관련 변인(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들이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이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서울,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광역시에서 만 20세부터 69세 이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 목적과 절차를 안내하는 서한과 함께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거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83건을 제외한 설문지 1,417장을 최종 분석하였다. 60대 이상 조사대상자들은 역연령으로는 은퇴했을 나이지만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은퇴관련 변인과 주관적 은퇴준비와 관련 변인들의 중요한 사항들을 도출해내고자 인구사회학적 특성(9문항), 은퇴 인식(9문항), 노후생활 인식(11문항), 은퇴준비 행동(29문항),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9문항), 은퇴만족도(13문항)를 측정하는 질문 80 문항으로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용과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허균석[15]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허균석[15]는 노인시작시기, 노후 예상문제, 자녀동거의사, 부모부양 책임, 자녀부양기대 등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7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 인식을 노인 시작 시기, 은퇴이후 가장 큰 문제, 자녀와 동거 희망여부, 인지적 은퇴준비 시기, 실제 은퇴준비 시기, 자녀의 부양기대 유무, 노후 주요 수입원, 최소 원 생활비, 노후에 필요한 월 적정자금을 묻는 질문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910이다.

둘째, 노후생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종모[2]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김종모[2]는 노후생활 인식을 3개의 하위영역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노후생활로 구분했는데 신뢰도는 각각 .585, .668, .741이었다. 본 연구의 노후생활 인식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적 노후생활 .673, 신체적 노후생활 .781, 사회적 노후생활 .811, 노후생활 인식 전체 .801이었다.

셋째, 은퇴준비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연진[7]이 PrePS(Noone, Jack H, Stephens, Christine, Alpass, Fiona, 2010)를 한국어로 번안한 K-PrePS 척도를 고찰하여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김연진[7]이 사용한 K-PrePS 척도의 신뢰도는 .797~.924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908이었다.

넷째, 경제적 은퇴준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김종모[2]가 사용한 척도를 고찰하여 사용하였다. 김종모[2]가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재정·주거 .712, 경제활동 .770, 건강관리 .825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이라는 변인으로

재구성하여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재정·주거 .793, 경제활동 .792, 건강관리 .821,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전체 .822이었다.

다섯째, 은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종모[2]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김종모[2]는 은퇴만족 예측정도를 재무적, 비재무적 만족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신뢰도는 재무적 만족도 .930, 비재무적 만족도 .814였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만족 예측정도를 ‘은퇴만족도’ 명명하고 신뢰도를 실시한 결과 재무적 만족도 .950, 비재무적 만족도 .853, 은퇴만족도 전체 .951이었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 내용 및 신뢰도 분석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조사도구 구성 및 신뢰도

구분	내용	문항수	Cronbach's a
은퇴인식	노인 되는 시기,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9	.910
	자녀와 동거희망 여부		
	은퇴준비 시기(인지)		
	실제 은퇴준비 시기		
	자녀에게 부양기대 유무		
	주요 수입원		
	최소 월 생활비		
	월 적정 생활비		
노후생활 인식	경제적 노후생활	4	.673
	신체적 노후생활	4	.781
	사회적 노후생활	3	.811
	노후생활 인식 전체	11	.801
은퇴준비 행동	재정	8	.757
	건강	4	.755
	시간 및 여가	8	.760
	역할	9	.870
	은퇴준비 행동	29	.908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재정주거	3
경제활동	3	.792	
건강관리	3	.821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전체	9	.822	
은퇴만족도	재무적	10	.951
	비재무적	3	.853
	은퇴만족도전체	13	.951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0.0과 AMOS 20.0을 사용하였다.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에 따라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은 하위요인 재정주거, 경제활동, 건강관리

로 구성된 경제적 은퇴준비상황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요인을 생성하였다.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의 전체평균은 2.89였다. 평균이 2.89미만이면 하 그룹으로, 평균이 2.89 이상이면 상 그룹으로 정의하고, 각각 측정모형을 구현한 다음, 경로의 강도를 비교함으로써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에 따른 은퇴준비 관련 변인들의 차이와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측정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모형의 확증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상정한 측정도구들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 인식과 노후생활 인식을 외생변수로 설정하였다. 은퇴 인식에 대한 질문 3문항(은퇴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은퇴생활에 대한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부양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까?)을 모두 역산하여 은퇴 인식이 강한 쪽으로 설정하였고, 노후생활 인식은 하위영역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노후생활 인식으로 나눈 다음 외생변수로 설정하였다. 내생변수는 은퇴준비 행동과 은퇴만족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들이 어느 정도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확보했는지를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뢰도는 .703으로 전반적으로 높았고, 개념 신뢰도는 .822~.920으로 아주 높게 형성되었다. 평균분산추출은 .702~.843으로 모두 0.7 이상임으로 개념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한 확증적 요인분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측정모형의 확증적 요인분석

요인	α	CR	AVE	factor loading	t
은퇴만족도	.951	.915	.843	.644~.855	27.609
은퇴준비행동	.912	.920	.743	.646~.914	17.274~20.605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822	.876	.702	.722~.895	24.139~28.032
은퇴 인식	.703	.822	.607	.694~.894	14.283~15.771
노후생활 인식	.801	.843	.662	.704~.887	17.133~17.353

2.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판별타당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의 적합도지수를 확인한 결과, GFI .907, TLI(Tucker-Lewis Index: NNFI) .957, CFI는 .967로 아주 높은 적합도 지수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요인구조는 매우 높은 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모형의 잔차도 RMSEA .0562(90% CI: .0497~.0630), RMR .0463으로 안정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은퇴 인식과 노후생활 인식의 상관이 .738로 가장 높았으며, 은퇴 인식의 평균분산추출이 .607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은퇴인식의 평균분산추출이 .607 > 은퇴 인식과 노후생활 인식의 상관인 (.738)²=.544' 이므로 요인 간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측정모형에 대한 확증적 요인분석, 적합도 지수,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본 연구에 상정한 요인들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모두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상정한 측정모형의 요인구조가 잘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판별타당도가 [표 3]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χ ²	df	χ ² /df	GFI	CFI	TLI (NNFI)	RMSEA 90%CI	RMR
1415.842	703	2.014	.907	.967	.957	.0562 (.0497~.0630)	.0463

표 4.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

요인	(1)	(2)	(3)	(4)	(5)
은퇴만족도(1)	.843				
은퇴준비 행동(2)	.366** (.134)	.743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3)	.567** (.321)	.484** (.234)	.702		
은퇴 인식(4)	.480** (.230)	.619** (.383)	.646** (.417)	.607	
노후생활 인식(5)	.403** (.162)	.566** (.320)	.527** (.278)	.738** (.544)	.662

3.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 사이에서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의 조절효과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에 따라 은퇴준비 관련 변인들(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후생활 인식→은퇴준비행동($\chi^2_{(1)}=1.342$, n.s)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은퇴인식→은퇴준비행동($\chi^2_{(1)}=4.581$, $p<0.05$), 은퇴인식→은퇴만족도($\chi^2_{(1)}=4.242$, $p<0.05$), 노후생활인식→은퇴만족도($\chi^2_{(1)}=4.010$, $p<0.05$), 은퇴준비 행동→은퇴만족도($\chi^2_{(1)}=6.429$, $p<0.01$) 경로에서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이 좋은 그룹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그룹보다 경로계수 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에 따라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에 따라 은퇴준비 관련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한 다중집단분석 결과가 [표 5]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 사이에서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의 조절효과

경로	$\chi^2(1)$ 변화	개별 표본의 경로계수 (표준화 계수)		비교
		상	하	
은퇴 인식 → 은퇴준비행동	4.581*	.373	.319	상)하
노후생활인식 → 은퇴준비행동	1.342	.489	.460	상=하
은퇴 인식 → 은퇴만족도	4.242*	.423	.389	상)하
노후생활인식 → 은퇴만족도	4.010*	.217	.085	상)하
은퇴준비행동 → 은퇴만족도	6.429**	.416	.205	상)하

$p<0.01$ **, $p<0.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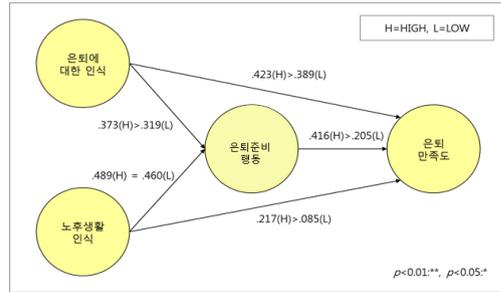


그림 2.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 사이에서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의 조절효과 (표준화 계수 기준)

4.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상그룹의 측정모형 적합도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상그룹의 적합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 상정한 측정모형은 $\chi^2=678.896$ ($df=352$), $\chi^2/df=1.923$ 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df 값은 일반적으로 3이하에서 만족된다. 적합도 지수 GFI .931, CFI .973, TLI .966으로 아주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RMR .0424, RMSEA .0785로 추정의 정확성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상그룹의 적합도 지수가 제시되어 있다.

표 6.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상그룹의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GFI	CFI	TLI (NNFI)	RMSEA 90%CI	RMR
678.896	352	1.923	.931	.973	.966	.0785 (.0686~.0879)	.0424

5.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상그룹의 측정모형 검증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상그룹의 측정모형 검증결과,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인식→은퇴준비 행동($r=.373$, $p<0.01$) 경로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노후생활인식→은퇴준비행동($r=.489$, $p<0.01$)의 경로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은퇴 인식→은퇴만족도($r=.423$, $p<0.01$)경로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노후생활인식→은퇴만족도($r=.217$, $p<0.01$) 경로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은퇴준비행동→은퇴만족도($r=.416$, $p<0.01$) 경로는 유의수준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상그림의 측정모형 검증결과가 [표 7]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상그림의 측정모형 검증결과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t
은퇴인식 → 은퇴준비행동	.373**	.361	.047	7.681**
노후생활인식 → 은퇴준비행동	.489**	.462	.048	9.625**
은퇴인식 → 은퇴만족도	.423**	.406	.050	8.120**
노후생활인식 → 은퇴만족도	.217	.197	.054	3.648**
은퇴준비행동 → 은퇴만족도	.416	.402	.057	7.053**

p<0.01:**,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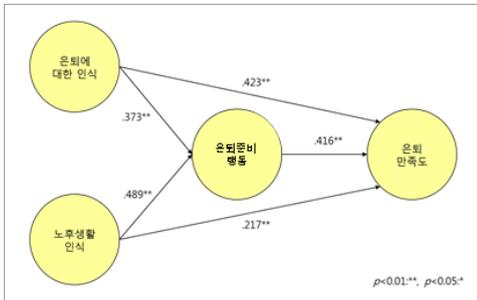


그림 3.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상그림의 측정모형 검증 결과 (표준화 계수 기준)

6.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하그림의 적합도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하그림의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 상정한 측정모형은 $\chi^2=780.708(df=356)$, $\chi^2/df=2.193$ 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인 GFI .922, CFI .943, TLI .939로 아주 높은 적합도를 보였고, RMR .0468, RMSEA .0834로 추정된 정확성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하그림의 적합도 지수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8.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하그림의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GFI	CFI	TLI (NNFI)	RMSEA 90%CI	RMR
780.708	356	2.193	.922	.943	.939	.0834 (.0761 ~ .0911)	.0468

7.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하그림의 측정모형 검증 결과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하그림의 측정모형 검증 결과,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하그림의 측정모형은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인식→은퇴준비행동($r=.319$, $p<0.01$)경로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노후생활인식→은퇴준비행동($r=.460$, $p<0.01$) 경로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은퇴 인식→은퇴만족도($r=.389$, $p<0.01$) 경로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노후생활인식→은퇴만족도($r=.085$, n.s)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은퇴준비행동→은퇴만족도($r=.205$, $p<0.01$) 경로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9]와 [그림 4]에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하그림의 측정모형 검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9.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하그림의 측정모형 검증결과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t
은퇴인식 → 은퇴준비행동	.319	.307	.049	6.265**
노후생활인식 → 은퇴준비행동	.460	.441	.048	9.188**
은퇴 인식 → 은퇴만족도	.389	.380	.049	7.755**
노후생활 인식 → 은퇴만족도	.085	.070	.056	1.250
은퇴준비 행동 → 은퇴만족도	.205	.189	.059	3.203**

p<0.01:**,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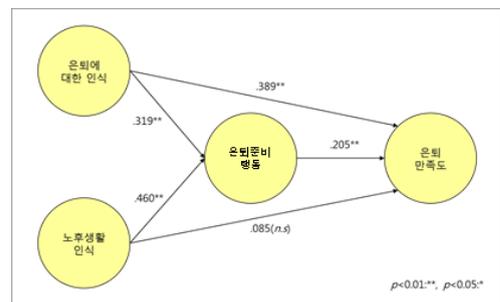


그림 4.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하그림의 측정모형 검증 결과 (표준화 계수 기준)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에 따라 은퇴준비 관련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경제적 은퇴준

비 상황이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이 좋을수록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이 긍정적이고, 은퇴준비 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은퇴만족도 또한 높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적 은퇴준비가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 이후 삶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밝힌 선행연구들[9-11][24]과 시사점이 같다.

둘째,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이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은퇴준비 행동, 은퇴만족도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있었다. 다만, 노후생활 인식과 은퇴준비 행동 간에는 조절효과가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적 은퇴준비를 잘 할수록 은퇴 및 은퇴의식이 긍정적이고, 은퇴준비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은퇴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후생활 인식은 은퇴준비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김연진[7]이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고, 적응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생활이 달라진다고 보고하면서,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면 은퇴 후 삶을 성공적으로 가꿀 수 있다고 밝힌 연구결과와 연관이 있다. 또한 은퇴 및 노후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은퇴 이후 삶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연구들[7][25-27]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은퇴준비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은퇴만족도 또한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은퇴준비 행동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은퇴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도 발견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 같은 주관적 은퇴준비 요인이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7][28-30]과 은퇴준비 행동 여부 같은 객관적 은퇴준비 변인이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7-11][21]의 결과와 시사점이 같다. 따라서 객관적인 은퇴준비 변인과

주관적인 은퇴준비 변인을 모두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은퇴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또한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 실제 은퇴준비 행동여부,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에 따라 은퇴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Tomas, E, & Biddle[13]이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은 은퇴와 관련된 개인의 태도와 행동 같은 차별화되고, 집합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에 따라 은퇴준비 행동과 은퇴만족도가 달라진다고 지적한 것과 시사하는 바가 같다. Hira[31]가 개인의 과거 경험과 인식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퇴 및 노후생활 인식과 실제 은퇴준비 행동 여부가 은퇴준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시사점은 은퇴 이후 삶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면서 사회적으로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자녀양육, 주거비 지출, 물가의 지속적 상승 등 다양한 방해요인으로 실제 은퇴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퇴준비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은퇴준비 부족과 은퇴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실증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중·고령자들의 은퇴 이후 삶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9]가 아직까지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 않고, 은퇴 후 삶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47.8%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은퇴준비 수준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대별,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은퇴 관련 실증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

둘째, 실제적 은퇴준비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시급하게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은퇴준비 관련 프로그램 참석 유무, 참석희망 여부, 원하는 주제, 진행방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은퇴준비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은퇴준비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은 은퇴를 앞둔 중

장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해석상의 유의점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지만,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에 따라 은퇴준비 관련 변인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규명하고, 경제적 은퇴준비 상황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 [1] <http://www.kostat.go.kr>
- [2] 김중모, 노후생활인식과 재무교육이 은퇴준비와 만족예측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3] <http://www.kiri.or.kr/html/search1.asp>
- [4] 이지영, 최현자,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자금 충분성과 영향요인: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韓國老年學, 제29권, 제1호, pp.215-230, 2009.
- [5] 여윤경,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韓國老年學, 제25권, 제1호, pp.21-36, 2005.
- [6] 유인순, 최수일,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친안지역 공단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245-262, 2012.
- [7] 김연진, 한국형 은퇴준비 척도타당화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8] 배문조, 전귀연,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7호, pp.89-102, 2004.
- [9] 홍성희, 박인숙,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2호, pp.89-104, 2007.
- [10] 여윤경, 김진호, “한국가계의 은퇴자산 적정성 판단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금융연구, 제21권, 제2호, pp.1-30, 2007.
- [11] 박창제,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사회복지학, 제60권, 제3호, pp.275-297, 2008.
- [12] 성영모, 오제은, 박승민, “은퇴에 관한 국내 연구 경향분석,” 가족과 상담, 제3권, 제2호, pp.39-56, 2013.
- [13] Roland Robertson, “Role Theory, Concepts and Research by Bruce J. Biddl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17, No.4, pp.442-443, 1966.
- [14] 여윤경, 정순희, 문숙재,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중산층 가계의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제10권, 제3호, pp.129-155, 2007.
- [15] 허균식, 경제적 은퇴준비 특성과 은퇴생활수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16] 한경혜, 김주현, 백옥미,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와 건강 준비의 관련 요인 탐색: 심리적 요인과 자원 요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8권, pp.133-162, 2012.
- [17] R. Atchley, “A continuity theory of normal aging,” Gerontologist, Vol.29, pp.183-190, 1989.
- [18] 배문조, “직장인의 은퇴기대가 은퇴준비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1호, pp.145-158, 2007.
- [19] 강유진,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5권, 제1호, pp.159-174, 2005.
- [20] 여윤경,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 개념: 문화적 요소의 결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40권, pp.65-96, 2014.
- [21] 김정현, 중년 남성의 포커싱적 태도가 은퇴준비 및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 중년남성교사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2] 김주성, “영세 독거노인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제11권, 제2호, pp.227-239, 1999.
- [23] 조주연, 권중돈,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韓國老年學, 제20권, 제3호, pp.61-76, 2000.

- [25] 김윤정,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24권, pp.197-213, 2004.
- [24] 배문조, 전귀연, “성인기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제1호, pp.13-24, 2010.
- [26] 배문조, 개인적 심리적 직업관련 변인이 은퇴기 대와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27] 서석희, 이정윤, “집단상담: 노년기 자아통합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상담학 연구, 제9권, 제1호, pp.85-102, 2008.
- [28] 이루리, 은퇴인식과 여가만족도가 노후준비수준에 미치는 영향 중년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29] 배재덕, “중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은퇴태도가 은퇴준비에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복지실천학회지, 제5권, 제2호, pp.101-119, 2013.
- [30] 강정애, 은퇴 예정자의 은퇴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은퇴 만족과의 관계분석,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31] Vicki Schram Fitzsimmons, Tahira K. Hira, Jean W. Bauer, and Jeanne L. Hafstrom, “Financial management: Development of scal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14, No.3, pp.257-274, 1993.

장 선 철(Sun-Chul Jang)

정회원



- 1977년 2월 : 대구대학교(특수교육학사)
 - 1981년 3월 : 고려대학교(상담심리석사)
 - 2003년 2월 : 건국대학교(교육학 박사-진로상담)
 - 현재 :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휴먼서비스콘텐츠, 진로교육 및 상담 콘텐츠

저 자 소 개

김 남 원(Nam-Won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전주대학교(상담심리학학사)
- 2010년 8월 :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인복지학석사)
- 2013년 2월 :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상담학 박사 수료)

<관심분야> : 교육콘텐츠, 휴먼서비스콘텐츠